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1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2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3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후렴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1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2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3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기도 담당

2/24(화)	2/25(수)	2/26(목)	2/27(금)	2/28(토)	3/2(월)
이규진1 안수집사	심재성 안수집사	배선호 안수집사	김경록 안수집사	김종욱1 안수집사	박수상 재적 안수집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엡4:3, 롬12:11)

2026년 2월 27일(금)

이른아침예배

(사순절 묵상)

인도 : 이지영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405장 다 같 이
 기 도 김경록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요한복음 6장 28-35절 인 도 자
 찬 양 완전하신 그 사랑 새벽찬양대
 설 교 『육의 필요를 넘어, ‘영혼의 하기’를 채우려』 이지영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366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 요한복음 6장 28-35절 >

28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9 예수께서 대답
 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30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31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33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4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
 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2026년 사순절 묵상: “광야에서 시작해 영광 가운데로” >

2/23(월)	2/24(화)	2/25(수)	2/26(목)	2/27(금)	2/28(토)
마태복음 4:18-25	마가복음 2:5-12	누가복음 8:43-48	마태복음 14:13-21	요한복음 6:28-35	마가복음 10:46-52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6년 2월 27일(금)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언제나 일으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오늘도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 말씀 앞에 멈추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주님께 나아와 간절히 구했던 많은 것들은, 주님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에만 한정되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육신의 필요, 현실의 필요에만 관심을 두고, 영혼의 갈급함을 외면했던 저희들의 연약함,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제는 현실의 떡이 아닌 생명의 원천되시는 주님만 붙잡는 은혜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새문안교회를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주의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든든히 서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성전이 주님의 영광이 매순간 머무는 거룩한 처소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이것을 위해 교회 헌당의 모든 과정 위에 세밀히 함께하여 주시고, 담임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에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흐르게 하옵소서.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저질렀던 여러 죄악과 실수를 자복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주인이요 통치자 되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 서	날 짜	장 소
새청년부	2/27(금) ~ 3/1(주일)	새문안수양관
청년 1부	3/6(금) ~ 3/8(주일)	새문안수양관
청년 2부	3/27(금) ~ 3/29(주일)	새문안수양관